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

(2019.1.28. ~ 2.3.)

이번 주 읽을 본문	가정	창 29 - 36	마 28 - 막 6
	개인	에 5 - 욕 2	행 28 - 롬 6
이번 주 암송구절	바른 신학 - 다섯 오직(1) - 오직 성경(3)		
	<p>갈 3:22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p>		



1월 28일(월)

창29

마28

에5

행28

사도행전 28장 / 땅끝까지

개요

1-10 멜리데 섬

11-31 로마

바울이 탄 배의 일행은 구조되어 멜리데 섬에 옵니다(1절). 거기서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상함이 없고,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을 낮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2-10절).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 형제들을 만납니다(11-15절). 그는 로마에 도착하여 한 집에 머물며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17-22절). 바울을 찾는 사람이 날로 많아지고, 그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구약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습니다(31절).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갑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내내 어떻게 하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지를 품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세상에서 살지만 어떻게 하면 신자다운 삶을 살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또 예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의 인생 목적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셨습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주님, 저도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그 복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1월 29일(화)

창30

막1

에6

롬1

로마서 1장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개요

1-7 인사

8-17 그리스도의 복음

18-32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도로 소개합니다(1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 교회에 인사합니다(2-7절).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마음을 밝힙니다(8-15절). 그가 전하려고 했던 복음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16,17절).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19-23절).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24,25절).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두셨고, 그리고 인해 그들은 죄의 비참한 처지에 빠졌습니다(26-32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습니다(18절).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갈 수 없지만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복음을 전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조차도 우상으로 바꾸는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전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주님, 주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찬송합니다!

1월 30일(수)

창31

막2

에7

롬2

로마서 2장 / 하나님의 심판

개요

1-16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

17-29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듯이 자신도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1-3절).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4,5절). 회개의 방향과 판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6-16절).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 먼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17-24절). 그러나 그들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되게 하였습니다(23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외형적인 것에 집착했습니다(25-29절).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는 얼마나 날카롭고 객관적인 기준을 잘 들이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이 자신에게도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생각지 못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눈으로 나를 본다면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릅니다.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은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또는 세상을 그렇게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도 유대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에 빠진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길 바라십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옵소서.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Promptly and Sincerely.

로마서 3장 / 하나님의 의

개요

- 1-8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9-18 우리는 나으나
 19-31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받았으나 유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1,2절). 그들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3-8절). 그렇다고 이방인이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9절).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10-18절). 율법이 죄를 드러냅니다(19,20절). 모든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룰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해주십니다(21-31절).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의 판단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준이 낮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죽음에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끌어 올리십니다.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겐 감사와 찬양의 반응만이 있을 뿐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어떻게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주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공의의 심판에서 건져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고맙습니다.

2월 1일(금)

창33

막4

에9,10

롬4

로마서 4장 / 믿음으로 얻는 의

개요

- 1-5 아브라함의 믿음
- 6-8 구약 신자의 믿음
- 9-12 우리의 믿음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1-5절). 구약 모든 신자도 일한 것 없이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6-8절). 이는 할례를 받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똑같습니다(9절).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11절).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것(창 17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창 15장) 후였습니다(10절). 아브라함은 이방인일 때(무할례자)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11,12절). 그러므로 처음부터 언약은 믿음의 의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13-22절). 또한 아브라함의 역사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입니다(23-25절).

믿음으로 구원 받는 의가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믿음 뒤에 온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은혜를 가리켜 복이라고 합니다(6절). 일한 것 없이, 즉 자신에게 의롭다할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데 의롭다 여김을 받는 복입니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죄의 대가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 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21절). 그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그 방법 외엔 달리 우리가 생명을 얻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외엔 우리에게 가망성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5장 /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확실한 소망

개요

1-11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12-21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됩니다(1,2절). 그로 인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소망이 이루어짐을 막을 수 없습니다(3,4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소망은 확실합니다(5-11절).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12절).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15,19,21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는 우리의 경험이나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선언입니다. 종전 선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용한 곳에서 느끼는 그런 평화로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평화로운 관계를 선언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며,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갈 5:1).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누리며 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2월 3일(주일)

창35,36

막6

눅2

롬6

로마서 6장 / 로마를 향해

개요

1-11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12-23 의에게 종 된 자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1,2절).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3,4,8절).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11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답게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12-15절). 이제 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를 자입니다(17-22절).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악도 선도 아닌 중간지대에 놓인 사람이 아닙니다. 악을 향해 살든지 선을 향해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라면 의를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 다니지 않고, 의를 향해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를 향해 사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자 답게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 설교 노트

본문 :

날짜 :

--	--

❖ 설교 노트

본문 :

날짜 :

--	--

* 순모임 나눔

세 가지 삶의 방식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세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 (1) 복음: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 (2) 비종교: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
- (3) 종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도 올바르게 도덕적인 삶을 행하여 구원에 이르려는 것

비종교와 종교의 차이점은 구분하기 쉽다. 훨씬 어려운 것은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교적인 사람은 단지 죄에 대해서만 회개한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죄와 더불어 자기 의에 대해서도 회개한다.

스필전은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들어 설명했다.

오래전 어떤 농부가 아주 커다란 당근을 키웠다. 그는 왕에게 그것을 가져가 “임금님이시여, 이것은 최고의 당근입니다. 제가 재배한 것 중에 최고이며 앞으로 이 것이 최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금님에 대한 저의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이 당근을 바치기 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왕은 농부의 진심에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돌아가는 그에게 “잠깐만! 그대는 이 땅의 좋은 청지기임에 틀림없구나. 내가 가진 한 구역의 땅을 값없이 선물로 주고 싶다. 그 땅에 농사를 짓도록 하라.” 농부는 왕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왕의 궁정에 있는 한 귀족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옳지! 당근 하나로 얻는 것이 땅이라면, 더 나은 것을 얻는 것은 무엇일까?” 다음날 귀족은 왕 앞에 잘 생긴 검정 말을 가져가 옆드려 절하고 말했다. “임금님이시여, 저는 말을 기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본 중에 최고의 말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임금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번에도 왕은 그의 진심을 보았다. 왕은 “고맙네”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취했고 그를 그냥 돌아가라고 했다. 당황하는 귀족에게 왕이 말했다. “농부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말을 주었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바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일 뿐이다.

1. 다음 말씀에서 말하는 사람은 세 가지 삶의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뜻합니까?(갈 2:21; 5:4)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2:21)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5:4)

2.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2:16)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3:22-24)

3. 우리의 과거가 아닌 그리스도의 과거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원리를 알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종교'의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가 인간 마음의 기본 상태'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회심한 이후에도 인간의 마음은 종교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루터가 '종교가 인간 마음의 기본 상태'라는 말에 동의합니까? 어떤 상황을 생각할 때, 루터의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을 자신감의 근거로 삼아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 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한 일들을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신뢰할 때 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마틴 루터

4. 다음은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땅이 위로부터 먼저 적셔지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음이 없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먼저 의롭게 되지 않고서는 율법에 이를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의는 율법의 의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율법의 의로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율법을 성취하려고 하지만 성취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의 의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며,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일한 것이 아니며, 의는 은혜로 우리 안에 만들어져 믿음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가? 왜 의를 얻기 위하여 아무 공로도 세우지 못하는가?

그렇다. 의는 완벽한 것이다. 인간은 율법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 공로도 쌓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믿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가셨으며, 아버지의 오른편 하늘에 앉아 계시고,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 위에 통치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다. 오직 은혜로써 말미암았다.

주님 안에는 충만하고 완전한 기쁨과 양심의 평화가 있다. 비록 나는 율법으로는 죄인이며,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만, 절망하지 않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나의 의로움이며 영원한 생명이다. 이 의로움과 생명 가운데 나는 죄사함을 얻었고, 두려움이 없고, 양심의 고통이 없고, 죽음에 대한 염려가 없다. 나는 진정으로 죄인 이어서 현재의 삶과 그 의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나는 또 다른 의와 생명을 갖고 있다. 즉 이생을 뛰어넘는 생명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죄와 죽음을 모르는 오직 의와 영생이다.

그리스도인의 의를 자신의 언어로 말해보십시오.

5. 로마서 6장 15-18절을 읽으십시오.

15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롬6:15-18)

믿지 않는 자들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그에 따른 근거나 이유를 나눠봅시다.

6. 도덕적 행동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을 읽고 이야기해봅시다. 다음은 팀 켈러가 에드워즈의 글을 요약하고 재구성한 글입니다.

도덕적 행동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보편적 미덕’과 ‘참된 미덕’이다. 정직이라는 한 가지 미덕을 예로 살펴보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정직하거나(“정직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른다!” 또는 “부정직하면 벌을 받는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정직하려 한다(“저 한심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자!). 에드워즈는 이것을 결코 경시하지 않으며, 이를 보편적 미덕(common virtue)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통제하시는 주된 방법이라고 그는 믿는다.

그럼에도 보편적 미덕의 중심부에는 깊은 긴장이 존재한다. 만일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려는 주된 이유가 두려움이나 자존심이라면, 사람들이 부정직하게 사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 역시 두려움이나 자존심일 것이다. 보편적 미덕에서는 악의 근본 뿌리인 마음의 깊은 자기중심성을 제거하지 못했다. 단순히 마음의 자기중심성을 제어한 것이지 변화시킨 것은 아니다.

결국, 두려움이나 자존심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도덕적이 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 그러나 깊은 차원에서 그들은 복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하거나(종교적), 자신이 덕 있고 자비심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행동한다(비종교적). 그들이 선을 행함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다. 선 자체를 위한 것도 아니며, 오직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근본적인 자기중심성은 보이지 않을 뿐, 보편적 미덕을 양분으로 삼으며 자란다. 이는 충격적인 방식으로 폭발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 도덕적인 사람들이 왜 큰 죄에 빠지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다. 이기심처럼 보이지 않는 그 수면 아래 엄청난 자기중심성이 숨어 있다.

에드워즈는 질문한다. “무엇이 참된 미덕인가?” 정직한 삶이 이득이 되어서도 아니고, 기분이 좋아져서도 아니다. 모든 진리와 진실과 성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심취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정직하게 된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정직 그 자체의 가치를 사랑할 때 가능해진다. 이런 종류의 동기부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동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다.

참된 미덕이 도래하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이다. 그리스도는 무한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셨다. 또한 고통을 통해 교만을 부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고통을 참아야만 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려진 존재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두려움을 부수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동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그 무엇보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 어떤 행위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서 떨어뜨릴 수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은 단지 제어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다. 근본적인 지향점이 변화되는 것이다.

마음의 진실한 목표가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만 하나님을 대한다. 자신에게 감동이 되거나 이익을 주는 선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한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값없는 은혜에 감동을 받는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무한한 영광스러움으로 나아가게 된다.

보편적 미덕과 참된 미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7.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금하기를 바라며 쓴 내용이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의 의지에 직접적으로 호소하지 않는다. 바울은 “나는 사도입니다. 구제는 여러분의 의무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또는 감정에 호소하며,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성도들이 그들보다 얼마나 넉넉한지를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바울은 분명하고 뇌리에 박히게 이야기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8:9)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돈과 부와 가난의 영역으로 가져오고 있다. 그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떠올리게 한다. “예수님의 값비싼 은혜를 생각해보라. 복음으로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넉넉히 베푸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

인색함에 대한 해결책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넉넉한 베푸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그분의 모든 것을 쏟아주셨다. 부부 사이에 정절을 지키는 것, 탐욕스럽지 않고 관대하게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 좋은 부모나 자녀가 되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려는 노력을 배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마음의 깨달음이 만드는 변화들을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마음은 지성, 의지, 감정의 좌소이다.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의 동기와 자기 이해와 정체성과 세상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한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마음의 변화 없이, 규칙에 순응하는 행동들은 피상적이며 일시적이다.

정말로 복음을 믿는다면, 결핍이 사라진다. 항상 존중받아야 하고,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하고, 인정 받아야 할 필요가 사라진다. 당신의 삶에 모든 일이 잘 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사라진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힘을 가질 필요가 없어진다. 이 모든 엄청난고 깊은 필요들은 당신의 삶 가운데 통제권을 행사한다. 사도 바울은 당신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복음이 당신을 가르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복음이 나를 가르치도록 기도합니다. 아래 표를 보고, 종교와 복음에 대한 차이를 살피고,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인도하시길 구합니다.

종교	복음
순종하면 받아들여질 것이다.	받아들여졌기에 순종한다.
두려움과 불안감에 기초한 동기부여	감사로 인한 기쁨에 기초한 동기부여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의 순종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닮는 목적을 지녔다.
일이 잘못될 때, 하나님이나 자신에게 분노한다. 축복받은 사람은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씩씩하다. 그러나 모든 심판이 예수님께 내려졌음을 이미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이 시련의 과정 가운데 있으며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안다.
비난을 받을 때, 분노에 휩싸여 마음이 무너진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의 자아상에 가해지는 모든 위협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비난을 받을 때, 씩씩하다. 그러나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꼭 본질적일 필요는 없다. 나의 정체성은 내 행동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
기도 생활을 주로 간구로 이루어진다.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신앙이 뜨거워진다. 기도의 목표는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는 것에 있다.	기도를 통해 찬양과 경배가 폭넓게 이어진다. 기도 생활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다.
자아상은 두 극단 사이를 오간다. 내 기준에 맞추어 잘 살고 있는 때에는 자신감을 갖는다. 점점 교만해지며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기준들에 부합하지 못하게 살고 있을 때는 자신감이 없다. 스스로 패배자로 느낀다.	자아상은 나의 도덕적 성취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simul iustus et peccator, 루터)이다. 죄인이며 상실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용납된 존재이다. 나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했다. 나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기쁘게 생명을 버리신 것으로 증명된다. 이 사실은 나에게 깊은 겸손과 함께 자신감을 갖게 한다.
정체성과 자존감은 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달려 있다. 또는 얼마나 내가 도덕적이냐로 결정된다. 그래서 나는 태만하거나 부도덕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을 무시한다.	정체성과 자존감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결정된다. 나는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신앙이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이다.

8. 한 주간 읽고 묵상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나요?

9.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제목을 나눠봅시다.